

전통 · 품격 담긴 한옥마을 '한눈에'

전주시, 오목대 둘레길 주변에 전망대 · 한식담장 설치... 남천교 청연루 · 전주향교 주변 등도 볼 수 있어

전주한옥마을을 오목대에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의 풍경과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다.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을 찾는 여행객에게 전통과 품격이 담긴 한옥마을 경관을 선명하기 위해 오목대 둘레길 주변에 전망대와 한식담장을 조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미관을 해친 오목대 절까지 부분에 한옥마을 일대를 내려다 볼 수 있는 전망대를 조성하고, 여행객을 위한 쉼터도 만들었다.

이곳에서는 전주한옥마을은 물론이고 전주천을 배경으로 한 남천교 청연루와 전주향교 주변, 남교산과 모악산을 볼 수 있다.

전라북도 기념물 제16호로 지정된 오목대는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황산에서 왜구를 토벌하고 귀경하

는 도중 승전을 자축하는 연회를 연 장소다. 1900년 고종이 친필로 쓴 태조고황제주필유지(太祖高皇帝駐蹕遺址: 태조가 잠시 머물렀던 곳)가 새겨진 비가 세워져 있다.

오목대 전망대 주변에는 한옥마을의 전통성과 정체성에 어울리는 한식담장도 조성됐다.

최근 종영된 드라마 '스물다섯, 스물하나' 촬영지를 찾아 전주한옥마을을 방문했다는 한 여행객은 "한식담장을 배경으로 해 사진을 찍거나 전망대에서 한옥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어서 색다른 경험이였다"고 말했다.

허갑수 전주시 한옥마을지원과장은 "이곳 전망대와 같이 한옥마을을 찾는 시민과 관광객들에게 더욱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해, 수많은 추억거리를 남겨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주한옥마을을 오목대에 고풍스러운 한옥마을의 풍경과 아름다운 전주의 모습을 조망할 수 있는 전망대가 생겼다.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표지판 설치

전주시, 8개소에 교통약자 이용편의 위해

장애인과 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셔틀버스 승강장에 전용 표지판을 설치했다.

전주시는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장애인·고령자 등 교통약자의 이용편의를 위해 전주역(역전 파출소)과 덕진노인복지관 등 8개소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표지판을 설치했다고 29일 밝혔다.

셔틀버스 이용객들은 그동안 일반 시내버스 승강장과 공유하고 있거나 표지판이 별도로 설치되지 않아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최근 전주시시설관리공단과 협의해 평소 이용량이 많은 곳 등 8곳을 선정해 표지판을 설치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에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해 이용자 많은 4곳에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표지판을 설치한 바 있다.

시는 향후에도 교통약자의 이용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미설치구역 66개소에 대해 연차적으로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 표지판 설치를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이 위탁해 운

행 중인 특별교통수단 셔틀버스는 총 4대로, 3개의 노선에서 1일 16회 운행된다.

주요 노선에는 복지시설, 병원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자세한 노선도와 운행시간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누리집(www.jss.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셔틀버스와 별도로 콜택시 55대와 임차택시 20대가 교통약자의 편의를 위해 운행 중이다.

셔틀버스와 콜택시, 임차택시 등을 이용하고자 하는 교통약자는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와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내용의 진단서, 주민등록증 등을 전주시시설관리공단(063-271-2727)에 제출해 이용자 등록을 해야 한다.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 등록된 교통약자는 4200명이다.

전주시 시민교통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인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환경을 갖추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원도심 2박3일 체류 여행상품 '당신만의 전주'

시, 생활관광 활성화사업 추진... 12월까지 흑서기 제외 매주 진행

전주 원도심에서 2박3일 동안 머물며 전주시만의 볼거리, 체험거리를 즐길 수 있는 여행상품이 나왔다.

전주시는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모사업인 '2022년 생활관광 활성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 생활관광활성화 사업은 방문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숙박)하면서 그 지역만의 문화와 역사, '지역다움'을 체험하고 지역민들의 삶

을 공유하는 관광상품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활성화에 목적을 뒀다.

지난해 12월 이 사업을 따낸 시는 올해 외부 전문가 컨설팅 및 자문회의 등을 거쳐 '당신만의 전주'라는 여행상품을 준비했다.

전주시 생활관광 프로그램인 '당신만의 전주'는 종남동과 중앙동, 서학동예술마을 등 전주 원도심 일원에서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2박 3일간

생활하며 현지 볼거리, 체험거리를 통해 지역민의 삶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전주다움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당신만의 전주' 여행은 6월 30일 첫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12월까지 흑서기를 제외한 매주 진행될 예정이다.

주요 프로그램은 △전주 원도심 로컬투어 △목판인쇄·부채 만들기 체험 △상설공연 관람 △전주미래유산 미션투어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과 한옥체험업 숙박 등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 프로그램 등 기타 자세한 사항

은 전주시청 누리집(www.jonju.go.kr) 또는 전주시 생활관광 누리집(jirecordtour.co.kr)을 통해 확인하거나, 전화(010-9836-5412)로 문의하면 된다.

전주시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이번 생활관광 여행상품 운영을 통해 전주의 볼거리와 체험 거리를 즐길 수 있는 현저한 생활관광을 관광객에게 제공하고, 전주시가 지나쳐가는 관광도시가 아닌 체류하는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공동주택 계약원가 자문 서비스 '관리비 절감'

전주시가 건축·토목 등의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주택에서 발주한 공사·용역 원가 자문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공동주택 관리비 절감에 큰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한 '계약심사제도'를 민간 공동주택으로 확대한 '무료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를 올 상반기 동안 실시한 결과, 공사 입찰시 단초 설계금액보다 약 23.8% 낮게 계약을 체결하는 도움을 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지난 2017년 도입된 계약원가 자문서비스는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조경·용역 등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계약원가심사 자문단이 비용 산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해 일부 업체가 부풀리기 방식으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부실시공으로 주민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례를 막는 역할을 하고 있다.

자문 대상은 공동주택에서 자기부담으로 실시하는 각종 사업으로, 공사와 용역 5000만 원 이상이다.

자문을 원하는 공동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자문신청 여부를 결정된 뒤 관리주체가 설계도서 등을 갖춰 전주시청 건축과에 신청하면 된다.

시는 자문 대상에 따라 해당 분야 전문위원에게 자문을 의뢰해 그 결과를 공동주택에 통보한다. 자문 결과 통보는 신청일로부터 2~3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시민 금융지식 함양 위한 '전주시 금융아카데미'

강창희 트러스트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 주제 강의

전주시가 올해도 시민들의 금융지식 함양을 위한 금융강좌를 운영한다.

시는 지난 28일 한국전문문화재단 4층 교육실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주시 금융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이날 첫 강좌에는 강창희 트러스트 자산운용 연금포럼 대표가 강사로 나서 '행복 100세 인생설계, 자산설계'를 주제로 합리적인 노후준비 방법과 '혼자 사는 노후를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등의 내용으로 강의를 했다.

강 대표는 또 참석자들과 노후 자산설계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통해 금융 지식 노하우를 공유하기도 했다.

시는 이날 첫 강좌에 이어 오는 9~11월에도 매월 1차례씩 특화된 교육콘텐츠와 우수 강사 확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금융투자교육원과 협업해 전주시 금융아카데미를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9월 15일에는 박원주 자기주도적 자산관리연구소 소장의 '투자자로서의 나 자신을 알자' 주제의



전주시는 지난 28일 한국전문문화재단 4층 교육실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전주시 금융아카데미'의 첫 번째 강좌를 진행했다.

강좌가 열린다. 이어 △이종우 이코노미스트의 '격동의 세계 속 한국경제' (10월 19일) △김형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의 '투자철학이야기' (11월 22일) 강의를 예정해 있다.

시는 전주시민 누구나 금융아카데미의 교육내용을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알기 쉬운 금융교육 플랫폼'으로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강병구 전주시 수소경제산업소장인 과정은 "전주시 금융아카데미는 금융에 대한 상식이나 이해도를 높이는 시간으로 금융에 대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전주가 금융도시로 나아가길 수 있도록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장직 인수위는 29일 한국전문문화재단 세미나실에서 인수위원회와 관광, 문화와 관련된 전주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문화·역사·메타버스 융합 정책 개발 교육

전주시장직 인수위, 문화·첨단기술 융합전문가 한소영 박사 초청 강연

제40대 전주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메타버스 관련 전문가를 초청해 전주의 문화, 역사 자산과 메타버스를 융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교육을 진행했다.

전주시장직 인수위는 29일 한국전문문화재단 세미나실에서 인수위원회와 관광, 문화와 관련된 전주시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메타버스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나선 문화기술·첨단기술 융합전문가 한소영 박사는 초연결 메타문화 융성을 통한 메타문화경제 특성, 글로벌 메타-미스 산업 육성을 통한 메타도시 조성 등을 주제로 강연했다.

한 박사는 "코로나 시대를 거치면서

디지털 마이스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경쟁은 가열되고 있지만 디지털 트윈 인프라와 메타버스 관광 콘텐츠는 전무한 실정"이라며 "K-컬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생산하고 마이스산업과 메타버스를 연계한 디지털 트윈 전략이 전주시 관광 정책의 한 전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병기 전주시장 당선인은 "전주가 가진 문화와 역사, 관광의 자산의 힘을 심부 활용해 실물경제로 이어지는 흐름을 만들어야 한다"며 "메타버스를 활용한 문화관광 자원 개발은 전주시 시민과 돈이 모이는 곳으로 만드는 훌륭한 전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 완산구청 여성가족과, 민원 처리 '우수'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 선정·시상

전주시 완산구청 여성가족과가 시민들의 불편 민원을 잘 처리한 우수부서로 뽑혔다.

전주시는 '2022년 상반기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우수부서'로 완산구 여성가족과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민원처리기간 단축 우수공무원과 친절공무원을 선발해 시상해왔으며, 올해부터는 민원만족도 향상과 민원부서의 사기 진작을 위해 시상분야를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부서까지 확대했다.

국민신문고 처리 우수부서 선정은

△민원 처리건수 △처리기간 준수율 △민원 만족도를 종합평가한 결과 총점 90.8점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완산구 여성가족과가 최종 선정됐다.

선정된 부서에는 은우리상품권이 상품으로 주어졌다.

박은숙 전주시 자치행정과장은 "월 평균 8000여건이 접수되는 국민신문고 민원처리 과정에서 대부분의 부서가 우수한 성과를 보여줬다"면서 "국민신문고 민원처리에 적극 노력하는 직원들에게 감사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학교, '야호아카데미' 개최

전주시가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교육전문가와 함께 교육 노하우를 공유하는 장을 마련했다.

전주시 야호학교(교장 장경수)는 오는 7월 21일 오전 10시 야호학교 4층 강당에서 '제3회 야호아카데미'를 개최한다.

전주시 야호아카데미는 시가 지난 2019년부터 전주형 창의교육 확산과 교육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운영하

는 전주시민 강연회다. '한 발 더 멀리 뛰는 세상'을 주제로 열리는 이날 강연회에는 김원규 금융경제교육전문가와 '다둥이아빠'로 잘 알려진 이정표 장애 아나운서가 연사로 나설 예정이다.

야호아카데미 강연회는 일방적 전달식의 강연이 아닌, 학부모, 교육전문가, 청소년 등 전주시민 누구나 함께 소통하고 창의적인 교육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한 소통의 장이면서 양방향



강연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강연이 끝나면 자유롭게 어울림 시간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도 갖고, 서로 의견을 나누고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므로써 부모들이 자녀교육에 대

한 필요성을 느끼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야호아카데미는 또 지역의 숨어있는 전주형 창의교육 유명 강사를 찾아 연사로 발굴하고, 자유로운 소통을 통해 교육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시민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올해까지 총 21회의 야호아카데미 강연회를 개최했다. 53명의 연사와 620명의 시민들이 자녀교육에 대한 비결과 정보 등 노하우를 공유했다.

/김윤상 기자